

조계사, 인터넷 방송국 개국

조계사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사이버 포교에 적극 나선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17일 홈페이지(jogyesa.or.kr) 개편 설명회를 갖고 새 신도 포교와 젊은층에 다가가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조계사방송국을 개국한다고 밝혔다. 조계사 방송국은 대웅전에서 열리는 각종 법회나 강좌를 생방송하고, 신도들이 자체 제작한 라디오 tv 프로그램도 방송할 계획이다. 또 방송국에는 각종 불교관련 동영상 자료실과 노전 본오스님의 독경CD와 조계사 합창단의 찬불가 파일을 제공하는 음악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 기존의 홈페이지도 자체서버를 구축

하여 용량을 늘리는 한편 회선속도를 강화하여, 불교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새로 선보였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내에 조계사 관련 60~70여개 카페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고등 학생회 및 대학생회, 청년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방과 토론실을 신설했다. 해외포교를 위해서도 영문사이트를 구축, 한국불교 및 조계사 알리기에 나섰다. 조계사는 상반기 중 사이버불교대과도 개교, 직장인이나 해외교포들이 인터넷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불교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 인터넷 방송국 초기화면.

불자 참여 확대, 커뮤니티 강화 영문 페이지 구축, 해외포교 역점

주지 지홍 스님은 "젊은층과 해외포교에 역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사람 홈페이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월정사-상원사간 도로. 사진제공=국시도

월정~상원간 도로포장 신중해야

차량통제계획, 생태계영향 검토키로

평창 월정사 상부에서 상원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지방도 446호선, 7.2km) 포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오대산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상원사간 도로포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월정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유지관리시민모임 등 관계자 30여명은 △지방도 44호선

평리-명계리를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일반 차량 이용 전면 통제를 정부에 건의 △월정사-상원사간 도로에서의 탐방객 관리 및 차량 통제 계획 수립 △도로포장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비포장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등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정권 계장은 "월정사-상원사간 도로는 비포장으로 인한 먼지발생 및 생태계

훼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월정사-상원사간 도로는 규정상 6호 국도와 56호 국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돼 있어 구간 도로 포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월정사-상원사간 도로포장은 △기존 개설된 도로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2개소에 대해서만 하천쪽으로 옹벽을 설치해 공사를 해야 한다 등을 단서조항으로 해 2002년 9월 26일자로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이 됐다. 남동우 기자

전남 동부 30여단체 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세가 미약한 호남 동부지역 불자들이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섰다. 순천 송광사, 선암사, 구례 화엄사 등 전남동부지역 신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여수·순천지부, 중·고교 불교학생회, 불자회, 대한불교청년회 전남지부 등 30여 불교단체들은 15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동부지역 불자연합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회장은 이날 창립법회는 송광사 주지 현봉, 화엄사 주지 명섭,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 조충훈 순천시장, 이흥제 순천시의회 의

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을스님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전남동부불자연합회가 호남지역의 불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회경태 초대회장은 "지역 신행단체간 교류와 협력, 연대를 통해 다양한 신행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불교를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불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복지, 환경보호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동부불자자연회는 향후 구례, 보성 등 인근지역의 불교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한편, 포교활동 지원, 불교대학 설립,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백양사 수행환경 훼손위기 전차포 사격장 이전 논란

장성 백양사 인근 전차포 사격장 이전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육군기계화학교는 지난 10일 지역주민에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흥리와 담양군 월산면 신계리에 전차포 사격장을 설치하겠다는 요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천년고찰인 백양사와 용흥사 중간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청도 15일 이전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백양사 사회국장 진우스님은 "백양사와 용흥사에서 4~5km 떨어진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수행환경 질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기계화학교 부학처장 이근직 중령은 "이전 계획은 가안이며, 예정 부지가 장성군과 담양군 소유의 땅이어서 양군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우정국 시민광장 5월 완공

조계사 옆 우정종교 주변 시민광장 조성 사업을 오는 5월 완공하겠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견지동 39-7번지 우정종교 건물 주변에 마련할 시민광장은 1천930여㎡ 부지에 소나무 등 14종 2천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우편을 테마로 한 편지의 자' 등 편의 시설과 조형물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는 56억9천만원을 들여 조계사 주변 문화재 정비사업을 지난해부터 벌여왔다. 김원우 기자

우리결 우리 신도

'불자다운 삶' 말없이 실천

일산 원각사 박영애·권영순 신도회장

일산 신도시 건설 붐을 타고 96년 도심포교당으로 건립된 통도사 일산분원 원각사(주지 정각)는 신도가 많은 사찰로 유명하다. 법당 관리로 도맡은 지장회, 꽃꽃이팀 향원회, 합창단, 불교교양대학,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보리수회 등 특별 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높인 결과다. 게다가 신도들은 법당관리, 공양물 준비, 종무소 운영 등 자율적으로 사찰을 운영해 남다른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신도들의 자율적인 사찰 운영에는 박영애(70세, 환희주), 권영순(66세, 마하연)

신도들의 활동을 묵묵히 뒷바라지 하는 것이 박영애, 권영순 두 신도회장의 몫이다. 게다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법당청소와 공간간 뒷정리까지도 어머니 같은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1주일에 한번씩 찾아가는 일산종합노인복지관 자원봉사와 2주일에 한번 열리는 꽃꽃이팀 모임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항상 종이에서 항내가 나듯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교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

신도들의 활동 묵묵히 뒷바라지

항상 자신 낮추고 기도하며 살아

신도회장, 김미숙 총무, 이영숙 재무 등 신도회 임원들과 법당관리팀 유정희 편재회보살, 향원회 최상이 김홍옥보살, 합창단 지영분보살, 불교대학 장선희 김순복 박준희 박성희 박신영 보살 등 많은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예불로부터 취침에 드는 시간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중 일이 없을 정도로 열성적인 활동으로 원각사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영애, 권영순 두 신도회장의 활동은 단연 돋보인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기 위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회장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박영애 회장은 매일 아침 천수경과 지장경 독송으로 아침을 열고, 권영순 회장은 천수다라니 기도와 법화경 사경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기도를 하면서 종만한 자신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권영순, 박영애 회장은 "새로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바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원각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명기자



◁박영애(앞줄 오른쪽 세번째)·권영순(앞줄 오른쪽 두번째) 신도회장을 비롯해 자율적인 사찰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신도들이 사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추천의말 정각스님 원각사 주지

작은 일까지 처리, 좋은 귀감

박영애, 권영순 신도회장은 원각사 불자들로 하여금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불자들이었다. 이사가 잦은 신도시의 특

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두 회장 덕분이기도. 사찰의 작은 일까지도 두 신도회장을 중심으로 각 팀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회장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른 불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요.

육임학당 「曉史塾」 제 5기 강의 안내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 5기 육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사주(四柱)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만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떠올 수 없습니다. 3개월 공부하여 육임 비술을 마음껏 펼쳐시기 바랍니다. 활인천역자로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단, 돈만 낸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활인 천역자로서의 기운을 따져 크게 쓰일 분만 선별 입강시키고 있습니다.

- ◆ 개강일시 :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오행기초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매주 사전교육함)
- ◆ 강의장소 : 서울 수유리 소재 강북구청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8번 출구 강북구청 마주보고 오른쪽 첫건물)
- ◆ 강의비용 : 1백 5십만원(전국 육임학당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드림)
- ◆ 강의기간 : 3개월 52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기초자는 3시부터)
- ◆ 대 상 : 스님·신명제자·오행가·명사가·기공가·목사·신부·수녀
- ◆ 강 주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 ◆ 마감 : 2003년 3월 3일 까지
- ◆ 문의전화 : 02-993-333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육임학당 인현숙 (강주: 자우스님) 011-729-6011
 육임학당 부산숙 (강주: 단곡법사)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강주: 월사선생)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강주: 상화선생) 011-650-8835
 육임학당 진주숙 (강주: 남곡선생) 011-567-1641 효사 출장강의 함
 육임학당 광주숙 (강주: 유선선생) 011-9606-7090 효사 출장강의 함

각지역 동시개강안내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만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떠올 수 없습니다 -

<p>육임학당 효사숙 강의안내</p> <p>3개월 52시간 수장으로 육임비술을 자신있게 펼칠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효사육임강의록」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의합니다.</p>	<p>효사육임인터넷강의</p> <p>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공부가 될수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것입니다.</p>	<p>오행(五行) 시간만족 치명수정보완본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들운서 시간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p>	<p>육임학당 효사숙 제 1기 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이정표!</p> <p>「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희귀품!</p>	<p>「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각 주요도시에서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 편이 백미입니다.</p>	<p>이 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p> <p>직분수행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서!</p> <p>1년내내 깨어있게 할수 있는 정확한 비서!</p> <p>정초에 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인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p>	<p>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산소탈·부정법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해수법이 구체적으로 체출되어 있는 비서서! 이 책은 3년간 정확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부않고 볼수없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 있습니다.</p>	<p>육임신수비결 250,000원 753페이지</p> <p>육임강의록 300,000원 1663페이지</p> <p>육임비디오강의 900,000원 28개</p> <p>오행(五行) 시간만족 치명수정보완본CD 2,000,000원 1개</p> <p>육임학당 효사숙 강의안내 1,500,000원 112회</p> <p>총 112회</p>	<p>육임래정비법수정본안내 2,500,000원 12권</p> <p>부록·비디오</p>
---	---	--	---	---	---	--	---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돌봄복문